

碩 士 學 位 論 文

日 本 語 「～てもらう」 構 文 研 究

指 導 教 授 金 勝 漢



濟 州 大 學 校 教 育 大 學 院

日 語 教 育 專 攻

姜 京 娥

2004年 2月

日本語「～てもらう」構文 研究

指導教授 金勝漢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3年 10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姜京娥

姜京娥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年 12月

審査委員長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국문초록>

日本語「～てもらう」構文 研究

姜 京 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勝漢

일본어의 수수동사는 하나의 동일한 수수내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국어의 수수표현과 달리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예를 들어, 주는 쪽이 주어인지, 받는 쪽이 주어인지, 경어인지 비경어인지, 혹은 화자와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따라 각각 동사의 사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학습할 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수수동사의 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て」 형태에 접속하여 보조동사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에 그 쓰임이 거의 없는 「～てもらう」에 관해서 그 용법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바르고 정확한 일본어 사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수수동사의 기본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てもらう」 구문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역형에 「～てもらう」 구문이 연결된 「～させてもらう」 구문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알아본 후에, 5장에서는 「～てもらいたい」 구문에 대하여 살펴보고, 「～てもらいたい」 구문과 그 의미와 쓰임이 비슷한 「～てほしい」 구문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2004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てもらおう」 구문은, 행위주체가 상대인 행위객체에게 행하는 행위가 행위객체에게 있어 통상 이익이나 은혜를 받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피해·불이익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수동구문과 사역구문에 호환되어 사용되면서,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 특히, 「～てもらおう」 구문의 사역표현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역표현에 비해 의미상 겸양의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させてもらおう」의 기본적인 의미는 행위주체가 상대방에게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させてもらおう」 표현에는 허가표현 뿐만이 아니라, 허가를 구한다는 의미나 은혜를 입는다는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선언표현의 경우도 있다. 또한 「～させていただく」 표현을 남발하여 오히려 공손이 아닌 위화감을 주기도 한다.

셋째, 「～てもらいたい」는 「たい」를 사용하여,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요구의 의미를 지니는 희망표현이다. 이것은 단지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상대에게 명령에 가까운 표현도 취하기도 하고, 완곡한 요구나 의뢰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요구의 의미를 가지는 희망표현인 「～てほしい」와 그 의미와 용법 상 유사한 점이 많아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목 차

| | |
|----------------------------------|----|
| 국문초록 | i |
| I. 서 론 | 1 |
| II. 수수동사의 기본의미 | 4 |
| III. 「～てもらう」 | 9 |
| 3.1 「～てもらう」의 기본 의미 | 9 |
| 3.2 「～てもらう」 구문의 의미분류 | 10 |
| 3.2.1 은혜·이익표현 | 11 |
| 3.2.2 수동표현 | 15 |
| 3.2.3 사역표현 | 19 |
| IV. 「～させてもらう」 | 23 |
| 4.1 「～させてもらう」의 기본의미 | 23 |
| 4.2 「～させてもらう」의 의미분류 | 23 |
| 4.2.1 허가·은혜 표현 | 23 |
| 4.2.2 선언표현 | 25 |
| 4.2.3 「～させていただく」의 과도한 사용 | 26 |
| V. 「～てもらいたい」 | 29 |
| 5.1 「～てもらいたい」의 의미와 용법 | 29 |
| 5.2 「～てもらいたい」와 「～てほしい」의 비교 | 33 |
| VI. 결 론 | 37 |
| 參 考 文 獻 | 39 |
| Abstract | 42 |

I. 서 론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아주 기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수수행위에는 주는 쪽과 그것을 받는 쪽의 인간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수수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수수동사(授受動詞)”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수수동사를 “수급동사(受給動詞)”, “やりもらい動詞”라고 칭하기도 한다.

일본어의 수수동사는 하나의 동일한 수수내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국어의 수수표현과 달리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예를 들어, 주는 쪽이 주어인지, 받는 쪽이 주어인지, 경어인지 비경어인지, 혹은 화자와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따라 각각 동사의 사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학습할 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수수동사의 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수동사는 일본어를 학습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칙이나 용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사용하는데에는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동사의 어형과 각각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 기본적으로 수수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면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くれる・くださる」, 「もらう・いただく」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동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을 주거나 받기도 하며, 다음의 (1)~(3)과 같이 「~て」 형태에 접속하

여 보조동사의 형태로 행위의 수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1) 判決後、男性は涙をこらえながら「最高裁まで争ってくれた弁護士さんに心から感謝したい」と語った。

(朝日新聞「以下 朝日」 2003.11.21)

(2) 苗は余っていたから分けてあげたのに。 (朝日 2003.10.11)

(3) ポーランド人のマチェヨフスキー司教が使節団のだれかに書いてもらい、後に同図書館に寄贈したらしい。

(毎日新聞「以下 毎日」 2003.06.21)

(1)~(3)의 밑줄 친 부분을 한국어로 풀이해 보면 (1) 「(변호사가) 싸워 주었다」, (2) 「(내가) 나눠주었다」, (3) 「(사절단의 누군가가) 써 주었다」가 된다. (1)~(3)의 밑줄 친 부분의 일본어 동사는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니지만, 한국어에서는 다 같은 「~해 주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1)(2)의 경우에는 일본어나 한국어나 모두 그 원래 의미인 「(주어가) ~해 주다」이지만, (3)을 한국어로 직역하였을 때는 「(주어가) ~해 받다」가 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비문으로 분류된다. 간혹 한국어에서도 「물려받다」, 「넘겨받다」, 「이어받다」 등의 「~해 받다」라는 표현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거의 그 쓰임새를 찾아볼 수 없다¹⁾.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수동사(授受動詞) 중에서도 「~てもら

う」에 관해서 그 용법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수수동사의 기본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てもら

う」구문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리고 4

1) 黃順花(1994), 「日本語の補助動詞「~てもらう」에 관한 韓國語와의 對照 研究(I)」 『日本學報』(33), 韓國日本學會, p.366.

장에서는 사역형에 「～てもらう」 구문이 연결된 「～させてもらう」 구문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알아본 후에, 5장에서는 「～てもらいたい」 구문에 대하여 살펴보고, 「～てもらいたい」 구문과 그 의미와 쓰임이 비슷한 「～てほしい」 구문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てもらう」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예문들은 일본의 각 신문에서 발췌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문형사전의 예문과 학자들의 예문을 재인용하였다.



Ⅱ. 수수동사의 기본의미

일본어에서 수수를 나타내는 동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くれる・くださる」, 「もらう・いただく」 등이 있다. 이 외에도 「与える・贈る・授ける・授かる・受ける・受け取る・得る」 등의 수수표현을 나타내는 유의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위의 7개의 동사만을 수수동사로 칭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수표현이라는 것은 “주다”와 “받다”의 이항(二項) 구조로 이루어진다. 한국어나 영어, 독일어의 수수동사를 예로 들어 보아도 “주다:받다”와 “give:receive”, “geben:bekommen” 처럼 이항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어에도 「与える:受ける」와 같은 수수를 표현하는 동사는 단순한 “주다, 받다”의 이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어 수수동사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단순한 주고받음만을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 (4) 吉里容疑者は児童と携帯電話で連絡を取り「友達を連れてくればもっとお金をあげる」と伝えていた。 (毎日 2003.07.18)
- (4a) 吉里容疑者は児童にお金をあげる。
- (4b) 児童は吉里容疑者に/からお金をもらう。

(4a)(4b)는 (4)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기 주어와 동사를 달리하여 표현한 문장이다. (4a)(4b) 모두 「お金」의 소유권자가 「吉里容疑者」에서 「児童」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며 「吉里容疑者」가 「お

金」를 건넨 사람이고 「兇童」가 「お金」를 받은 사람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먼저 동사의 형태가 「あげる」와 「もらう」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吉里容疑者」와 「兇童」의 문법적 역할로서 (4a)에서는 「吉里容疑者」가 주어, (4b)에서는 「兇童」이 주어가 된다. 즉, (4a)(4b)에서는 주어역할이 서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 주어의 교체로 인해 (4a)에서는 「兇童」이 「に」격을 취하고, (4b)에서는 「吉里容疑者」가 「に」격 또는 「から」격을 취한다.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2개의 동사, 2개의 구문은 불필요한 것이며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동사와 구문을 취하는데, 수수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경우는 이처럼 2개의 동사와 구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어의 수수동사에는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어의 교체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준다, 받다”의 이항구조를 지닌 「あげる・もらう」만 있는 것이 아니라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くれる・くださる」, 「もらう・いただく」 등의 동사가 존재하고, 이들 7개 동사는 일련의 체계에 따른 각기 다른 사용법을 지닌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²⁾.

| | | | |
|-----|---|---|--|
| (5) | <u>A</u> は ・ 행위주체 ・ 주어 ・ 주는 사람 | <u>B</u> に ・ 행위객체 ・ 화자측 입장 ・ 받는 사람 | <u>C</u> をくれる/くださる。 <u>V</u> てくれる/くださる。 |
|-----|---|---|--|

2) 森田良行(1977), 『角川小辞典 7 基礎日本語1』, 角川書店, p.191.

| | | | |
|-----|---|---|--|
| (6) | <u>A</u> は | <u>B</u> に | <u>C</u> を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u>V</u> て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주체 ・ 화자측 입장 ・ 주어 ・ 주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객체 ・ 받는 사람 | |

| | | | |
|-----|---|---|--|
| (7) | <u>B</u> は | <u>A</u> に/から | <u>C</u> をもらう/いただく。 <u>V</u> てもらう/いただく。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객체 ・ 화자측 입장 ・ 주어 ・ 받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주체 ・ 주는 사람 | |

일본어 수수표현은 「주는 사람」 주어와 「받는 사람」 주어라는 시점과 관계된 구문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くれる・くださる」로 후자는 「もらう・いただく」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손윗사람·아랫사람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대우표현 상의 문제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화자로 보고 화자와의 관계에서 화자 측 입장에 보다 가까이 있는 쪽을 「내(内)」로, 보다 먼 쪽을 「외(外)」로 보는 내외관계를 나타내는 수수표현도 성립한다³⁾.

(5)~(7)의 체계에 따라서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그리고 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각의 동사를 달리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3) 奥津敬一郎(1986), 「やりもらい動詞」 『国文学解釈と鑑賞』 (51-1), 至文堂, p.99.

(8) 母は毎年、面會に訪れ300通の手紙をくれた。 (毎日 2003.05.11)

(8)a 母は私に手紙をくれた。

(8)b 私は母に手紙をあげた。

(8)c 私は母に手紙をもらった。

(8)d *私は母に手紙をくれた。

(8)e *母は私に手紙をあげた。

(9) おとうさんとおかあさんが一緒にお弁当を作ってくれた。

(毎日 2003.08.31)

(9)a おとうさんとおかあさんは私にお弁当を作ってくれた。

(9)b 私はおとうさんとおかあさんにお弁当を作ってあげた。

(9)c 私はおとうさんとおかあさんにお弁当を作ってもらった。

(9)d *私はおとうさんとおかあさんにお弁当を作ってくれた。

(9)e *おとうさんとおかあさんは私にお弁当を作ってあげた。

(8)(9)와 같이 사물이나 행위의 수수를 나타내는 경우, 이들 각 동사들은 수수의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인칭제한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1인칭(私) > 2인칭(あなた) > 3인칭(그 외)」이라는 인칭서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くれる」은 행위객체가 행위주체보다 인칭서열이 위이고, 「あげる・もらう」의 경우에는 행위주체가 행위객체보다 인칭서열이 위이다⁴⁾. 이에 따라 (8)(9)를 각각 인칭서열에 따라 동사의 형태를 달리하여 표현해 보면 각각 (8a)~(8c), (9a)~(9c)와 같은 문장이 되고, (8d)(8e)(9d)(9e)의 경우에는 그 체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수동사는 단순한 사물이나 행위의 주고받음만을 뜻하는

4)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一改訂版一』, くろしお出版, p.86.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그리고 화자와의 내외관계, 존경 표현과 관계되는 대우표현의 문제 등에 따라 그 사용법을 달리 한다. 또한 수수동사가 보조동사의 형태로 사용되어 행위의 수수를 나타내는 (9)와 같은 경우에는 수수동사의 다양한 용법과 더불어 「은혜의 수수」라는 표현상의 커다란 의미적 특징을 가진다⁵⁾.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수수동사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 중에서도 수수동사가 보조동사로 사용되어 행위의 수수를 나타내는 경우, 그 중에서도 「~てもらう」구문과 그 관련 구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5) 庵功雄(2001), 『新しい日本語学入門 ことばのしくみを考える』,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122.

Ⅲ. 「～てもらう」

3.1 「～てもらう」의 기본 의미

- (10) 女児はこの時は話をしただけで、“バイト代”[※]をもらった。
(産経新聞 「以下 産経」 2003.07.18)
- (11) 何度も子供の顔を思い浮かべた。力をもらった。 (産経 2003.06.16)
- (12) 点検を終えて安全であり、地元町村や県議会から運転再開の理解をいただいている。
(日経新聞 「以下 日経」 2003.06.25)
- (13) *先生はぼくから本をもらった。 (奥津 1986:101)
- (14) *學生がぼくから本をいただいた。 (奥津 1986:101)

「もらう」는 일반적으로 (10)~(12)와 같이 화자 혹은 화자 측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사물 또는 행위를 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나 (13)(14)와 같이 주어가 화자나 화자 측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비문이 되며, 특히 (14)의 경우에는 자신인 「ぼく」를 스스로 존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우표현 상 부적절한 문장이 된다.

이에 대해 「～てもらう」구문은 단순히 사물의 수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가 행위를 받는 사람인 주어를 위해서 동작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주어는 화자 혹은 화자 측 사람이 된다. 또한 행위를 받는 사람은 그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 (15) 私は鈴木さんに答えを教^レてもらった。 (益岡・田窪 1992:87)

(16) 私は花子に助けてもらった。 (益岡・田窪 1992:87)

(17) 私は田中さんに自宅に来てもらった。 (庵 2001:123)

(15)~(17)을 표현된 그대로 파악해 본다면 「私」가 「鈴木さん」, 「花子」, 「田中さん」에게 각각 「教える」, 「助ける」, 「来る」라는 행위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행위주체인 「鈴木さん」, 「花子」, 「田中さん」이 행위객체인 「私」에게 「教える」, 「助ける」, 「来る」라는 행동을 해주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일본어에서는 일반적인 수수표현의 하나로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てもらう」구문의 경우, 통상 행위주체의 행위가 객체에게 은혜·이익을 준다는 수익용법으로 사용된다. (10)~(12)의 경우 역시 행위객체의 「教える」, 「助ける」, 「来る」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私」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그에 대한 은혜의 기분을 느끼고 있음이 문장 안에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てもらう」구문이 반드시 행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은혜·이익을 받는다는 수익구문으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주체의 행위가 행위객체의 의뢰나 요구 등으로 인해 발생한 행위인 경우, 보통 은혜·이익과 관련된 구문이 되지만 그 외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분류는 「~てもらう」구문의 의미분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てもらう」구문의 의미분류

3.2.1 은혜 · 이익표현

(18) (私は)パリのホテル・ド・クリヨンのフェデー・シェフにレシピや
デザインを紹介してもらいました。 (産経 2003.07.22)

(18)a フェデー・シェフは私にレシピやデザインを紹介した。

(19) (私は)社長から事情を説明してもらった。 (日経 2003.06.27)

(19)a 社長が私に事情を説明した。

(18)(19)는 (18a)(19a)라는 행위에 「~てもらう」가 연결된 것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나, (18)(19)처럼 「~てもらう」가 연결된 문장의 경우, 「レシピやデザインを紹介する」, 「事情を説明する」라는 행위로 인해 「私」가 「フェデー・シェフ」와 「社長」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てもらう」구문의 은혜 · 이익표현은 행위주체의 행위에 의해서 객체가 이익을 얻거나, 은혜의 기분을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은혜 · 이익표현의 구문은 행위객체의 요구나 의뢰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18b) 私はパリのホテル・ド・クリヨンのフェデー・シェフに頼んでレ
シピやデザインを紹介してもらいました。

(19b) 私は社長に頼んで事情を説明してもらった。

(18b)(19b)는 「~てもらう」구문의 은혜 · 이익표현인 (18)(19)에 요구표현인 「頼んで」를 삽입한 것이다. 「頼んで」의 유무와 관계없

이 (18)(19)와 (18b)(19b)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은혜·이익 표현을 나타내고 있지만, 「頼んで」가 사용됨으로써 행위객체의 행위가 화자의 요구·의뢰에 의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8)(19)와 마찬가지로 (18b)(19b) 역시 행위객체의 행위로 인해 화자가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에 대한 화자의 은혜·감사의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18b)(19b)와 같이 직접적인 요구·의뢰의 표현인 「頼んで」가 삽입된 「～てもらおう」구문인 경우에는, 행위객체인 화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은혜·이익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 | | |
|------|--------------------------------|----------------------|----------------------|
| (18) | 私は ・ 행위객체 ・ 의뢰자 ・ 수익자 | フェデール・シェフに ・ 행위주체 | レシピやデザインを紹介してもらいました。 |
|------|--------------------------------|----------------------|----------------------|

| | | | |
|------|--------------------------------|----------------|--------------|
| (19) | 私は ・ 행위객체 ・ 의뢰자 ・ 수익자 | 社長から ・ 행위주체 | 事情を説明してもらった。 |
|------|--------------------------------|----------------|--------------|

또한 의뢰의 의미를 지니는 「～てもらおう」구문의 행위주체는 행위객체의 의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유정(有情)명사⁶⁾라야 한다.

6) 益岡・田窪(1992), p.104.

(20) *乗客が飛行機に飛んでもらった。 (許明子 2000:5)

(21) *川家康がホトドギスに鳴いてもらった。 (許明子 2000:5)

(20)(21)처럼 「飛行機」, 「ホトドギス」가 행위객체의 자리에 오게 되면 주체의 의뢰·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⁷⁾.

(18)(19)처럼 문장 안에 은혜·이익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 자체에 은혜·이익에 대한 감사의 기분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한다.

(22) 28年間のサッカー生活の最後を大勢の人に見届けてもらってうれしい。

(日経 2003.06.21)

(23) こんな大勢のファンと一緒に歌ってもらい、本当にうれし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毎日 2003.01.11)

(24) 不当な差別に理解を示してもらって、大変喜んでいる。

(毎日 2003.06.21)

(25) 初回到大量得点してもらって、気持ちが楽になった。

(読売新聞「以下 読売」 2003.10.05)

(22)~(25)는 문장 자체에 「うれしい」, 「大変喜んでいる」, 「気持ち가楽になる」 등을 사용하여 행위주체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감사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18)(19)와 같이 (22)~(25)의 행위가 요구나 의뢰에 의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7) 許明子(2000), 「テモラウ文と受身文の關係について」 『日本語教育』(105), 日本語教育学会, p.4.

(22)a ?28年間のサッカー生活の最後を大勢の人に頼んで見届けてもらってうれしい。

(23)a ?こんな大勢のファンに頼んで一緒に歌ってもらい、本当にうれしい。

(24)a ?人々に頼んで不当な差別に理解を示してもらって、大変喜んでいる。

(25)a ?選手に頼んで初回到大量得点してもらって、気持ちが楽になった。

(22)~(25)에 「頼んで」를 삽입하여 요구·의뢰의 의미를 더하면 (22a)~(25a)처럼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22a)를 살펴보면 선수 자신에게 있어서 「28年間のサッカー生活の最後」라는 뜻 깊은 날 자신의 요구에 의해 「大勢の人に見届けてもらう」라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대한 기분이 「うれしい」로 표현될 수 있겠는가하는 의미 상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23a)에서는 「ファン」이라는 것은 요구에 의하지 않더라도 「一緒に歌う」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서, 요구가 없어도 「一緒に歌う」라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頼んで」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4a) 역시 요구에 의해 「理解を示してもらう」라는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理解を示す」라는 행동이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동인지, 아니면 요구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행동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大変喜んでいる」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25a)에서도 「大量得点する」라는 행위 자체가 「頼んで」라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選手に頼んで初回到大量得点してもらって、気持ちが楽になった」라는 요구표현은 적절한 문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2a)~(25a)처럼 요구·의뢰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て

もらう」구문에「頼んで」라는 요구표현이 삽입되면 앞 뒤 문맥의 내용 상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다.

즉, 「～てもらう」구문의 은혜·이익 표현은 (18)(19)와 같이 행위객체인 화자의 요구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져, 그 행위로 인해 화자가 이익을 얻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22)~(25)와 같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화자로 하여금 은혜·이익의 기분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22)~(25)와 같이 요구에 의하지 않은 「～てもらう」구문인 경우, 행위객체는 단지 행위에 의한 수익자일 뿐, 행위의 의뢰자는 아니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행위객체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행위주체의 자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 즉 「～てもらう」구문의 은혜·이익 표현을 “이익적행위의 취득(利益的行為の取得)”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⁸⁾.



3.2.2 수동표현

3.2.1에서는 「～てもらう」구문의 은혜·이익표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행위주체의 행위로 인해 행위객체가 은혜나 이익의 기분을 느끼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위주체의 행위로 인해 행위로 인해 피해나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26) 県外から来てもらっても宿泊先が確保できない。 (朝日 2003.04.23)

(27) 自分の名前を覚えてもらっても無効票が増える恐れがある。

8) 奥津敬一郎·徐昌華(1982), 「「～てもらう」とそれに対応する中国語表現—“清”を中心に—」 『日本語教育』 46, 日本語教育学会, p.98.

(朝日 2003.10.27)

(28) 戦時であって、自由な報道をしてもらっては困るケースもあるのだろう。

(毎日 2003.04.04)

(29) 西武・伊原監督「主力選手に出て行ってもらっては困る。」

(毎日 2003.08.24)

(26)~(29)에서는 「~できない」, 「~恐れがある」, 「~ては困る」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26)~(29)처럼 행위주체의 행위가 반드시 행위객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행위객체가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는다는 기분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행위주체의 행위로 인해서 화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피해나 불이익의 「~てもらおう」구문은 일본어의 수동 표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동표현이란, 어떠한 행위로 인해 행위객체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행위객체가 행위가 일어나도록 행위주체에게 의뢰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즉, 행위객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동표현 중에서, 행위주체의 행위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피해의 수동(迷惑の受身)⁹⁾이라고 한다.

피해·불이익의 「~てもらおう」구문이 그 의미상 유사한 피해의 수동문과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는 경우와, 피해·불이익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일반적인 「~てもらおう」이 수동문과 호환되어 사용되

9) 益岡・田窪(1992), p.104.

는 경우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피해·불이익의 「~てもらう」 구문이 수동문과 호환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0) 私は彼に何回も謝ってもらってどう反応したら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

(許明子 2000:7)

(30)a 私は彼に何回も謝られてどう反応したら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

(31) 何の連絡もなく勝手に会社を休んでもらっちゃ困るよ。

(許明子 2000:7)

(31)a 何の連絡もなく勝手に会社を休まれちゃ困るよ。

(30a)(31a)는 수동문이고, (30)(31)은 각각의 수동문과 같은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てもらう」 문이다. 이 각각의 수동문과 「~てもらう」 문은 같은 사실관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각각을 표현하는 화자의 입장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동문인 경우, (30a)는 「彼が謝る」라는 행위와 주어인 「私」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직접수동문이고, (31a)는 「彼が勝手に会社を休む」라는 사실에 화자가 직접 개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실로 인하여 화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간접수동문이다¹⁰⁾.

그러나 (30)(31)의 「~てもらう」 구문의 경우, 구문적으로는 (30a)의 직접수동문과 (31a)의 간접수동문에 각각 대응되고 있지만, 의미적인 면에 있어서는 양쪽 다 직접수동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0)은 (30a)와 마찬가지로 「彼が謝る」라는 행위와 주어인 「私」

10) 益岡・田窪(1992), p.102~104 참조.

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직접수동문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고, (31)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그 사실과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てもらう」를 사용하여 화자가 「彼が勝手に休む」라는 사실과 관련된 당사자라는 입장에 서서 표현하고 있으며, 행위 자체가 회사와 화자를 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31)은 구문적으로는 (31a)와 같은 간접수동문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직접수동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간접수동문은 행위주체가 행한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소극적인 표현인데 반해, 「～てもらう」구문은 행위주체가 행한 행위가 마치 화자 자신을 향한 것처럼 표현하여 화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표현방법이다¹¹⁾.

이처럼 피해·불이익의 「～てもらう」구문은 행위객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위주체의 행위로 인해 행위객체인 화자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피해의 수동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피해·불이익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てもらう」구문이 수동문과 호환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太郎は先生に絵をほめてもらった。

(32)a 太郎は先生に絵をほめられた。 (益岡・田窪 1992:103)

(32)는 「太郎」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先生」의 일방적인 「ほめる」라는 행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의미상 피해나 불이익

11) 許明子(2000), p.7.

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太郎」의 요구에 의하여 「ほめる」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先生」의 의지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것도 하나의 직접수동의 예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てもらう」구문은, 행위객체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행위주체가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수동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てもらう」구문은 피해·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행위객체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てもらう」구문의 수동표현을 「이해(利害)의 표현」이라고 한다¹²⁾.

3.2.3 사역표현



(33) 私が勝った場合には私の方針に従てもらおう。 (産経 2003.07.12)

(33)a 私が勝った場合には私の方針に従わせる。

(34) 前半戦の投手陣のふがいなかったことを含めて、一切の責任を取ってもらった。 (産経 2003.07.18)

(34)a 前半戦の投手陣のふがいなかったことを含めて、一切の責任を取らせた。

(35) 私は妹に荷物を受け取りに行ってもらいました。 (松蒲 2003:113)

(35)a 私は妹に荷物を受け取りに行かせました。

일반적으로 사역표현이란 「花子が行く」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에 강제적 의미가 더해진 「太郎が花子を行かせる」처럼 주어의 의지가

12) 石原嘉人(1991), 「表現内容を重視した文型の提出順序 — 「～てもらう」表現をめぐって—」 『日本語教育』(74), 日本語教育学会, p.92.

강하게 작용해서 상대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주체의 의지가 아닌 행위객체의 의지에 의해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33)~(35)는 「~てもらう」 구문이고, (33a)~(35a)는 각각 이에 대응하는 사역구문이다. (33)~(35)를 살펴보면, 행위객체의 요구나 명령에 의해 「方針に従う」, 「責任を取る」, 「受け取りに行く」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要求して~てもらう」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장 안에 요구나 명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사역구문과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33a)~(35a)처럼 사역구문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도 비문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 의미의 「~てもらう」 구문인 경우 일반적인 은혜·이익의 「~てもらう」 구문처럼 수익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지는 않는다¹³⁾.

이와는 달리, 요구나 명령에 의하지 않은 「~てもらう」 구문인 (36)(37)과 같은 경우에는 (36a)(37a)처럼 사역구문으로 바꾸었을 경우 비문이 되는 경우도 있다.

(36) 谷選手は「今まで助けてもらった部分がいっぱいある。これから2人で助け合っていきたい」と緊張気味。 (毎日 2003.01.26)

(36)a *谷選手は「今まで助けさせた部分がいっぱいある。これから2人で助け合っていきたい」と緊張気味。

(37) 熱心に誘ってもらって光榮だが、今は道路公団民営化のことで頭がいっぱい。 (読売 2003.07.24)

13) 益岡隆志(2001), 「日本語における授受動詞と恩恵性」 『言語』 (30-5), 大修館書店, p.29.

(37)a *熱心に誘わせて光榮だが、今は道路公団民営化のことで頭がいっぱい。

(36)(37)의 「~てもらう」 구문은 일반적인 은혜·이익표현으로 위의 사역표현과는 달리 행위객체의 요구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6)은 「谷選手」의 요구·명령·강제 등에 의해 「助ける」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의 행위로 인해 단지 행위객체가 은혜·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37) 역시 화자의 요구에 의해 「誘う」라는 행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光榮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감사·은혜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행위객체의 요구·명령·강제의 의미가 없는 「~てもらう」 구문인 경우에는 사역구문으로 바꾸었을 때 (36a)(37a)와 같이 비문이 된다.



(38) 私は彼にピアノをひいてもらった。 (奥津・徐 1981:98)

(38a) 私は彼にピアノをひかせた。 (奥津・徐 1981:98)

(39) 私はきのう田中君に辞めてもらった。 (松蒲 2003:113)

(39a) 私はきのう田中君を辞めさせた。 (松蒲 2003:113)

또한 강제·요구 등에 의한 사역표현을 나타내는 「~てもらう」 구문인 경우, (38)~(39a)와 같이 「~させる」 표현의 직접적인 사역 구문으로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우표현 상 각각의 문장이 가지는 뉘앙스가 달라진다. (38a)(39a)와 같이 「~させる」를 사용하면 행위에 대한 강제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38)(39)와 같이 「~てもらう」를 사용하면 「~させる」표현에 비해 겸양적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강제적 사역은 “윗사람의 동작을 촉구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기도 한다¹⁴⁾.

(40) 學生が教授に講演してもらおう。 (石原 1991:91)

(40a) ?學生が教授に講演させる。 (石原 1991:91)

(40)과 같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강연을 의뢰하는 경우, (40a)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겸양표현인 (40)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사역의 「~てもらおう」구문은 요구·명령 표현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사역적행위의 겸양적표현(使役的行為の謙讓的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14) 石原嘉人(1991), p.91.

15) 廣津・徐(1982:99)에서는 「~てもらおう」구문을 사역의 의미로 서술하면서 『広辞苑』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広辞苑』에서는 「~てもらおう」를 다음과 같이 사역의 의미에 한해 표현하고 있다.
(動詞連用形に助詞「て(で)」の付いたものに続けて)他人の動作によって自分が恩恵・利益を受ける意を表す。また、自分のために行爲・動作を他人に依頼し、させる意を表す。「教えてー・う」「やめてー・いたい」

IV. 「～させてもらう」

4.1 「～させてもらう」의 기본의미

「～させてもらう」는 구조적으로는 “사역+「～てもらう」”의 형태를 지니지만 사역의 특징과 「～てもらう」의 특징을 모두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 「～させてもらう」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文化庁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¹⁶⁾.

「～させてもらう」の基本的意味は、動作の主体が主体以外の人物の許可を得てある行為を行うことによって、何らかの恩恵を得るという意味合いがある。この「～させてもらう」を謙讓表現の「～させていただく」にすると、聞き手への遜り度が強く感じられる。

4.2 「～させてもらう」의 의미분류

4.2.1 허가·은혜 표현

(41) 「ぜひ一緒に連れて行ってください」とお願いして後日、船に同乗させてもらった。 (朝日 2002.11.10)

(42) 上の写真は、このレストランで撮らせてもらいました。 (朝日 2003.07.01)

16) 文化庁(1995), 『ことばに関する問題集—敬語編一』, 大蔵省印刷局, p.57.

- (43) 週末は富津市にある学校の合宿施設を使い、練習に参加させてもらうこともあった。 (朝日 2003.07.05)
- (44) 「監督に甲子園に出場させてもらったことで今の自分がある」と的野監督は振り返る。 (朝日 2003.07.09)
- (45) 友人の陶芸家が自分の妻のおなかを使って大皿を焼いているのを見て、自分たちも作ってみたくなり、知り合いの妊婦に頼んで、形を取らせてもらったそうだ。 (朝日 2003.07.21)

(41)을 보면, 상대방이 승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화자는 상대방에게 배에 탈 수 있도록 허가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42)에는 레스토랑 측에 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43)에서는 상대방이 연습 참가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화자는 상대방에게 연습에 참가하고자 허가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44) 역시 감독이 야구 경기의 출장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의 허가 하에 경기 출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5)에서도 임신부에게 허가를 구하고 임신부 배 모양의 그릇을 빚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41)~(45)은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하고 그 허가에 대해 은혜·이익의 기분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させてもらう」 구문은 구조상 사역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させる」라는 형식은 단순히 행위객체와 행위주체의 의미역할의 분담을 나타내는 표현에 지나지 않고, 본래의 사역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¹⁷⁾. 다만 「~させてもらう」에 남아있는 것은 「~ってもらう」 구문의 수익의 의미로서, 구문상 사역자로 표현되는 행위객체는

17) 山田敏弘(2001), 「日本語におけるベネファクティブの記述的研究 「~させてもらう」(1)」 『日本語学』 20-10, 明治書院, p.97.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행위주체는 그 행위를 하고자 허가를 구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에는 감사 혹은 은혜의 기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허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문장 안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2.2 선언표현

- (46) 来週で契約期間が切れるので、契約を終了させていただきます。(朝日 2003.05.03)
- (47) まったく私の個人的な理由で、このコラムを当分の間、休載させていただきます。(朝日 2003.06.05)
- (48) 明日試合だな。おれたちが勝たせてもらおう。(朝日 2003.07.16)
- (49) みなさんから寄せいただいた質問を、趣旨が変わらない程度に加筆・修正させていただく場合もあり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朝日 2003.10.14)
- (50) 今後、様子を見守るが、場合によっては(衆院側と)別の行動を取らせてもらおう。(毎日 2003.08.06)
- (51) 判決公判を前に「当日は退廷覚悟で言いたいことを言わせてもらおう」と弁護団に予告していた宅間被告。(産経 2003.06.26)

(46)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허가를 구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라, 계약 종료에 관한 행동과 결정권 모두 화자가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내용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화자가 허가를 구하고자 하는 의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한 결정권도 화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う」의 허가·은혜 표현과는 차이를 보인다. (47)에서도 칼럼 휴재에 대한 독자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당분간 칼럼은 휴재하겠다는 화자 자신의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8) 역시 상대방에게 경기 결과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지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49)~(51)에서도 「加筆・修正する」, 「行動を取る」, 「言う」라는 행동을 하기 위한 허가를 구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결정권이 화자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화자가 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화자의 의지에 의해 행동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46)~(51)의 「~させてもらう」 구문은 기본 의미인 허가를 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을 「~させてもらう」의 「선언표현」이라고 한다¹⁸⁾.



(46)~(51)와 같이 선언표현을 나타내는 「~させてもらう」 구문은 기본 의미인 허가를 구하는 표현과는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화자 본인의 의지에 따른 행동을 함으로써 화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させていただく」의 과도한 사용

「~させてもらう」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은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에 대한 공손한 표현으로 「~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

18) 茜八重子(2002), 「「~(さ)せていただく」について」 『講座 日本語教育』 38, 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センター, p.29.

러나 이러한 「은혜·이익」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 공손도가 지나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52) 鑑賞は、本展覧会覧券の提示にてできますが、事前申込み制となっております。定員80名になり次第締切らせていただきます。

(朝日 2002.08.08)

(53) 乗車いたします。ドアを閉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茜 2002:41)

(52)(53)를 각각 허가 요구 표현과 선언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52)(53)의 「～させていただきます」 표현을 허가 요구표현으로 볼 경우, 「締切る」, 「ドアを閉める」라는 행동은 화자가 하게 되지만 각각의 「締切ってもいい」, 「ドアを閉めてもいい」라는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締切る」, 「ドアを閉める」의 결정권은 화자에게 있고 상대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화자는 전람회 관객과 열차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를 대신하여 정원 80명으로 제한하고 문을 닫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させてもらう」의 일반적인 표현인 「허가·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52)(53)에서 “관객 혹은 승객의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한다는 뉘앙스가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은혜·이익」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전람회나 철도 운행 규정상 정원을 제한하고, 열차의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締切らせていただきます」, 「ドアを閉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라는 격을 갖춘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52)(53)을 선언표현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締切る」, 「ドアを閉める」라는 행동과 결정권을 모두 화자가 가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앞서서도 서술했듯이 원래 「締切る」, 「ドアを閉める」라는 행위나, 그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관객이나 승객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의 「～させていただく」는 당연히 선언표현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공손도가 지나친 표현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선언표현은 정중체인 「～ます」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締切らせていただきます」, 「ドアを閉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대신에 「定員は80名となっています」, 「ドアが閉まります」처럼 「～ます」를 사용하는 것이 화자에게 결정권이 있음을 더 확실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V. 「～てもらいたい」

5.1 「～てもらいたい」의 의미와 용법

(54) 拉致問題については事実関係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安否が確認されていない10人について真相を究明してもらいたい。

(朝日 2003.08.28)

(55) 外相は緒方氏の起用について「JICAは途上国では評価が高いが、先進国では十分に知られていない。今までの国際経験、国際感覚を生かして、国際的に評価される組織にってもらいたい」と期待を示した。

(日経 2003.08.26)

(56) 積立金運用の損失問題も責任をとってもらいたい。(日経 2003.09.06)

(57) 森氏がプーチン大統領に「大統領選で再選されたら最初の訪問国として日本を考えてもらいたい」と要請すると、「考えておく」と返答したという。

(毎日 2003.06.21)

(58) 経務省も「同様な悪用も予想され、セキュリティー意識を高めてもらいたい」と話している。

(毎日 2003.07.03)

「～てもらいたい」구문은 「～もらう」구문에 「～たい」가 연결된 것으로 형식상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줄 것을 희망하는 것이 되는데 (54)~(58)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화자의 희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된다.

(54)에서는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10인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줄기를 바란다 라는 희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5)에서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JICA」가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어 달라는 「外相」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56)에서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 라는 요구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57)에서는 「最初の訪問国として日本を考えてもらいたいと要請する」와 같이 요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의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요구의 내용을 가지는 희망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8) 역시 안전의식의 고취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희망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てもらう」 구문에 조동사 「たい」가 연결되면, 형식상으로는 행위주체인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줄 것을 희망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즉, 「～てもらう」의 요구에 의한 이익의 취득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조동사 「～たい」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알아주기를 상대에게 기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59) ちょっと私の部屋まで来てもらいたい。 (国際交流基金 1980:39)

(60) もういい加減にやめてもらいたい。 (朝日 2003.05.26)

(61) 厳しい選挙。みなさんの力をぜひ貸していただきたい。
(朝日 2003.11.03)

(62) 横田滋さんは「問題解決には世論の力が大切で、若い皆さんもぜひ関心を持って見守っていただきたい」と訴えた。 (毎日 2003.01.15)

또한 「～てもらいたい」 구문은 (59)(60)과 같이 상대에 대해 명령

에 가까운 직접적인 요구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와, (61)(62)처럼 상대에게 정중히 요구·부탁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61)(62)와 같이 정중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상대에 대한 배려의 뜻이 담긴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てもらいたい」구문은 의뢰나 요구의 행위에 따라 완곡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희망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약자의 입장에서의 요구표현이기 때문에 표현 상에는 당연히 화자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¹⁹⁾.

(63) 彼もいっしょに連れて行ってもらいたいようだ。

(國際交流基金 1980:39)

(63)a *彼はいっしょに連れて行ってもらいたい。

(64) やっててもらいたいことがあったら、彼女に頼んでください。

(國際交流基金 1980:39)

(64)a *あなたはやってもらいたい。

(63)(64)는 화자가 제3자의 희망사항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요구나 희망, 즉 속뜻을 「～てもらいたい」구문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에는 화자가 제3자의 희망사항을 화자 나름대로 파악하여 화자 자신의 생각처럼 단정 혹은 추량하여 서술하게 된다. 그러나 「～てもらいたい」구문이 제3자의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경우, 「～てもらいたい」를 문말에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3.1에서 설명했듯이 「もらう」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 화자 혹은 화자 측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사물

19) 阪田雪子(1987), 「依頼・要求・命令・禁止の表現」 『国文法講座6 時代と文法—現代語』, 明治書院, p.321.

혹은 어떠한 행위를 받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가 화자나 화자 측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63a)(64a)와 같이 비문이 된다.

(65) くだらない、けち臭いなどと思わないでもらいたい。

(朝日 2002.03.08)

(66) 伝統を守り、それを後に伝えていくことも、忘れないでもらいたいと思う。

(朝日 2002.11.30)

(67) 今頃サンマか?と言わないでもらいたい。今だからサンマなのだ。

(朝日 2003.06.12)

(68) 信頼できない政治家に予算など決めていただきたくないとします。

(朝日 2003.03.06)

(69) あれだけは親にやってもらいたくないよね。

(朝日 2003.06.11)

(70) 「ここは田舎で不便なところ」というネガティブな気持ちは持ってもらいたくない。

(朝日 2003.10.18)

「~てもらいたい」가 부정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 (65)~(67)과 같은 「~ないでもらいたい」와 (68)~(70)과 같은 「~てもらいたくない」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ないでもらいた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65)처럼 「くだらない、けち臭いなどと思わないで。」의 의미로 사용되어, 어떤 행위가 실현되는 것을 엄중하게 거부하는 기분이 강하고, 따라서 요구·명령적인 여운도 강하게 나타난다. 그에 대해 (68)~(70)의 경우에는, (68)처럼 「予算など決めてもかまわないけれど、できればそうしないで。」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사항이 실현되는 것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기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5.2 「～てもらいたい」와 「～てほしい」의 비교

5.1에서는 「～てもらいたい」 구문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어에는 「～てもらいたい」 구문과 그 의미와 용법이 유사한 「～てほしい」 구문이 존재하는데, 이번 장에서는 두 구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71) でもそうじゃないところも知ってもらいたいな。 (産経 2003.05.10)

(71)a でもそうじゃないところも知ってほしいな。

(72) 一刻も早く家族や仲間を助けてもらいたい。 (読売 2003.07.22)

(72)a 一刻も早く家族や仲間を助けてほしい。

(73) 被告に謝ってもらいたいとは思わない。 (読売 2003.07.23)

(73)a 被告に謝ってほしいとは思わない。

(74) 菅氏には新しい民主党の代表として十分リーダーシップを發揮してもらいたい。 (読売 2003.07.28)

(74)a 菅氏には新しい民主党の代表として十分リーダーシップを發揮してほしい。

(71)~(74)의 「～てもらいたい」를 (71a)~(74a)처럼 「～てほしい」로 바꾸어도 적격문이 된다. 그러나 「～てもらいたい」와 「～てほしい」가 쓰임으로 해서 각각의 문장의 시점이 달라진다.

(71)b でもそうじゃないところもあなたに知ってもらいたいな。

(71)c でもそうじゃないところもわたしは知ってほしいな。

(71b)(71c)는 (71)(71a)에 각각 「あなた」, 「わたし」를 넣어서 문

장의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것이다. (71b)와 같은 「～てもらいたい」 구문은 「～てもらう」의 기본의미인 의뢰에 의한 은혜의 수수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주체인 상대 「あなた」가 중요시된다. 그 반면 (71c)의 「～てほしい」 구문은 의뢰에 의한 은혜수수의 의미보다는 직접적으로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행위주체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화자 자신 「私」가 중심이 되는 표현이다. 즉, 「～てもらいたい」 구문은 행위주체에게 행위를 기대하는 소극적 요구인 반면, 「～てほしい」 구문은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てもらいたい」 구문과 마찬가지로 「～てほしい」 구문 역시 “동사의 테형+ほしい”의 형태로서 상대방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표현형식이다. 단순한 희망표현처럼 단지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넓게 파악하였을 때 의뢰, 명령·금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 (75) 「宅間被告に對して『簡單には死刑を確定させない』という我々のメッセージを送り、そこから命の重さを感じ取ってもらいたい」と説明した。
(日経 2003.09.10)
- (76) 事態の終結を宣言してほしい。
(産経 2003.05.22)

즉, (75)(76)처럼 직접 상대에게 명령에 가까운 표현도 취하기도 하고, 완곡한 의뢰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되며, 수동적으로 단지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는 기분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てもらいたい」구문과 「～てほしい」구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항상 호환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77) 早く春が来てほしい。 (国際交流基金 1980:40)

(77)a *早く春が来てもらいたい。

(78) もっと住みよい社会になってほしい。 (国際交流基金 1980:40)

(78)a *もっと住みよい社会になってもらいたい。

전술한 바와 같이 「～てもらいたい」구문은 상대에 대한 의뢰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위주체가 유정(有情)명사라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77a)(78a)처럼 특정의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의 실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てもらいたい」구문이 사용되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てほしい」구문은 상대에게 의뢰나 요구를 통해 행위를 수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희망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주체의 유무가 관계되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마음속의 원망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어도 무방하다.

(79) うまく投げよう、としないでほしい。 (朝日 2003.07.30)

(80) 両親が日本にいることは言わないでほしい。 (朝日 2003.08.01)

(81) 後輩には悔しい思いをさせたくないし、してほしくない。

(朝日 2003.07.15)

(82) それぞれ持ち味があり、どのチームにも負けてほしくない、甲子園で

戦ってほしいと真剣に思った。 (朝日 2003.08.01)

「～てもらいたい」구문과 마찬가지로 「～てほしい」구문 역시 (79)～(82)처럼 부정표현으로 사용된다. 그 표현 내용 역시 「～てもらいたい」구문과 유사하여, (79)～(80)의 「～ないでほしい」의 형태는 어떤 행위가 실현되는 것을 엄중하게 거부하는 기분이 강하고, (81)～(82)의 「～てほしくない」의 형태는 어떤 행위가 실현되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피하려는 기분을 나타내는데 이용된다²⁰⁾.

원래 「～てもらいたい」구문과 「～てほしい」구문이 병렬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던 것은 아니다. 「～てほしい」구문은 관서방언(関西方言)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동경어(東京語)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점은 동경어를 표준으로 하는 규범의식에서 적극적으로 「～てほしい」구문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²¹⁾.

20) 国際交流基金(1980),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④ 文法Ⅱ』, 凡人社, p.40.

21) 国際交流基金(1980), p.40.

VI. 결 론

일본어 수수표현의 하나인 「～てもらう」 구문에 관하여 그 수의 표현과 그에서 파생된 「～させてもらう」, 「～てもらいた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てもらう」 표현은 한국에서는 거의 그 쓰임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행위의 수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본어의 독특한 특색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수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행위주체와 객체간의 은혜·이익표현과 수동·사역 표현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させてもらう」와 「～てもらいたい」의 의미와 용법 역시 행위객체와 행위주체 간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てもらう」의 기본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행위주체가 행위를 받는 사람 즉, 행위객체인 주어를 위해 동작을 행하고, 행위를 받는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해 어떠한 이익·은혜, 불이익·방해를 얻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てもらう」 구문의 경우, 행위주체가 상대인 행위객체에게 행하는 행위가 행위객체에게 있어 통상 이익이나 은혜를 받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피해·불이익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각각 수동구문과 사역구문에 호환되어 사용되면서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특히, 「～てもらう」 구문의 사역표현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역표현에 비해 의미상 겸양의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させてもらう」문의 경우, 구조적으로는 “사역+「～てもら」”의 형태를 지니지만 사역의 특징과 「～てもら」의 특징을 모두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 「～させてもらう」의 기본적인 의미는 행위주체가 상대방에게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させてもらう」표현에는 허가표현 뿐만이 아니라, 허가를 구한다는 의미나 은혜를 입는다는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선언표현의 경우도 있다. 또한 「～させていただく」표현을 남발하여 오히려 공손이 아닌 위화감을 주기도 한다.

셋째, 「～てもらいたい」는 조동사 「たい」를 사용하여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요구의 의미를 지니는 희망표현이다. 이것은 단지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상대에게 명령에 가까운 표현도 취하기도 하고, 완곡한 요구나 의뢰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또한 요구의 의미를 가지는 희망표현인 「～てほしい」와 그 의미와 용법 상 유사한 점이 많아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参 考 文 献

<예문출전>

朝日新聞
産経新聞
日経新聞
毎日新聞
読売新聞

<외국문헌>

<단행본>



- 文化庁(1971),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2 待遇表現』, 大蔵省印刷局.
- 森田良行(1977), 『基礎日本語1』, 角川書店.
- 宮地 裕(1979), 「やる、くれる、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 『日本の言語学 第5巻 意味・語彙』, 大修館書店.
- 国際交流基金(1980),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④ 文法Ⅱ』, 凡人社.
- 森田良行(1982), 『基礎日本語2』, 角川書店.
- 阪田雪子(1987), 「依頼・要求・命令・禁止の表現」 『国文法講座6 現代と文法-現代語』, 明治書院.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一改訂版一』, くろしお出版.
- 文化庁(1995), 『ことばに関する問題集-敬語編一』, 大蔵省印刷局.
- 城田 俊(1998), 『日本語形態論』, ひつじ書房.
- 森山卓郎・仁田義雄・工藤浩(2000), 『日本語の文法3 モダリティ』, 岩波書店.
- 庵 功雄(2001), 『新しい日本語学入門 ことばのしくみを考える』, スリーエー

ネットワーク.

<사전류>

文化庁(1971), 『外国人のための基本語用例辞典』, 大蔵省印刷局.

日本語教育学会 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新村出 編(1998), 『広辞苑』 第五版, 岩波書店.

<논문>

奥津敬一郎(1986), 「やりもらい動詞」 『国文学解釈と鑑賞』 (51-1), 至文堂.

村上三寿(1986), 「やりもらい構造の文」 『教育 国語』 (84), むぎ書房.

堀口順子(1987), 「「~テクレル」「~テモラウ」の互換性とムード的意味」
『日本語学』 (6-4), 明治書院.

石原嘉人(1991), 「表現内容を重視した文型の提出順序 — 「~てもらう」表現
をめぐって—」 『日本語教育』 (74), 日本語教育学会.

竹林一志(1998), 「日本語「~にVしてもらう」構文について — 非対格性との
関連をめぐって—」 『言語』 (27-9), 大修館書店.

花田康紀(1998), 「現代日本語の受給表現をめぐって — 動詞の中止形+受給動
詞のばあい—」 『東京国際大学論叢 人文社会学部編』 (4),
東京国際大学

許明子(2000), 「テモラウと受身文の関係について」 『日本語教育』 (105), 日
本語教育学会.

奥津敬一郎・徐昌華(1982), 「「~てもらう」とそれに対応する中国語表現 —
“清”を中心に—」 『日本語教育』 (46), 日本語教育学会.

益岡隆志(2001), 「日本語における授受動詞と恩恵性」 『言語』 (30-5), 大修
館書店.

山田敏弘(2001), 「日本語におけるベネファクティブの記述的研究 「~させて
もらう」 (1)」 『日本語学』 (20-10), 明治書院.

- 山田敏弘(2001), 「日本語におけるベネファクティブの記述的研究「～させてもらう」(2)」 『日本語学』(20-12), 明治書院.
- 茜八重子(2002), 「「～(さ)せていただく」について」 『講座 日本語教育』(38), 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センター.
- 松蒲とも子(2003), 「「使役形てもらう」構文の日中対照研究—中国語母語話者の授受表現における母語の影響—」 『早稲田大学 日本語教育研究』(3), 早稲田大学大学院 日本語教育研究科.

<한국문헌>

<논문>

- 黃順花(1994), 「日本語의 補助動詞「～てもらう」에 관한 韓国語와의 対照研究(I)」 『日本学報』(33), 韓国日本学会.
- 洪令子(1995), 「行爲の授受動詞「てもらう」について」 『日本学論集』(3), 경희대학교대학원일본학논집간행회.

<Abstract>

- A Study on 「～てもらう」 Sentence Structure -

Kang Kyong-a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Seung-han

Japanese verbs for giving and receiving have very diverse forms in expressing a given content compared to Korean. For example, each verb usage depends on the situation such as whether the subject is the giving one or the receiving one, formal language or informal language, or close person to speaker or not. Therefore, Japanese learner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usage difference of giving and receiving verb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hough it is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This study looks into the case used as auxiliary verb which is the connecting 「～て」 form. It is especially focused on the usage and meaning of 「～てもらう」 form which is hardly used in Korean. By doing this, it will be helpful for the correct and proper use of this Japanese form.

To this end, Chapter II covered the basic meaning of giving and receiving verbs. The meaning and usage of 「～てもらう」 sentence structure is defined in Chapter III. 「～てもらう」 sentence structure, connected with 「～させてもらう」 sentence structure and causative verb, is examined in Chapter IV. Chapter V takes a close look at the 「～てもらいたい」 sentence structure. Comparison was done between 「～もら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4.

いたい」 sentence structure and 「～てほしい」 sentence structure similar in meaning and usage.

First, 「～てもらう」 sentence structure is a commonly used form, meaning for the subject's act is usually benefitted and profited from the object. However, the meaning of this sentence structure is tricky. It can also be used as meaning for damage and disadvantage. Also, it can have different and distinct variables by being interchangeable with passive sentence structure and causative sentence structure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case of the causative expression of 「～てもらう」 sentence structure, especially, it has many more honorable forms of meaning than the direct causative expression.

Second, the basic meaning of 「～させてもらう」 is that the subject is benefitted from the object when the subject acts upon the object's acceptance. However, besides the 'acceptance' meaning, 「～させてもらう」 expression can imply the meaning for asking permission or act as a declarative expression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getting benefit. In addition to that, the abuse of the 「～させていただく」 expression can cause a sense of incongruity to someone rather than giving a polite meaning.

Third, 「～てもらいたい」 is an expression of desire containing the meaning of demand for someone to do some action or wish for the things going to be done in combination with 「～たい」. This does not have a single meaning for someone to do something for the subject. It also takes the meaning of a near-imperative expression and sometimes a roundabout demand or request. Also, its meaning and usage is similar with 「～てほしい」, an expression of demand. Therefore, it is interchangeable.